

증산 강일순의 인권사상*

윤 기 봉

대진대학교

〈요 약〉

인권은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 개념은 모두 그 연원을 서구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인권이 과연 전 세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각자가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채감인권은 분명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더 거슬러 올라간 조선시대는 현대의 인권언어로 반인권이라 불리워지는 여러 현상들이 당연히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조선후기, 한국신종교의 태동과 함께 교조들이 반인권적 요소들을 변혁하고자 나서게 된다.

증산은 '인권'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현대의 인권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발견된다. 사회적 약자들을 대하는 증산의 태도와 '차별의 철폐'라는 그만의 인권언어에서 '인권'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증산의 인권사상은 사회적 약자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과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통해 인권이 '인간존중'의 메시지임과 아울러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호존중의 의미가 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증산의 의지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존엄을 동등하게 향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실천적 행위가 병행 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증산은 인권을 확립하기 위한 근거로 해원이념을 들고 있다. 해원을 통해 소외되고 착취당하던 민중들로 하여금 본래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해원이념에는 해원주체로써의 민중이 있으며, 생명의 귀중함과 존엄성에 대한 증산의 성찰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핵심 주제어: 인권, 증산, 해원, 민중, 생명.

* 2009년 대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I. 서 론

인권은 그가 어디에 살든 관계없이 각 개인에게 부여된 일련의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리고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개인이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인간으로서의 자질, 지적능력, 재능, 의식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영적 혹은 기타의 욕구들을 충족시켜준다’(UN, 1987)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여기서 보여지는 인권에 대한 설명은 “인권이 전 세계 모든 인류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각자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체험인권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권개념은 모두 그 연원을 서구에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인권의 개념과 내용에 있어서 모델이 되고 있는 유엔 인권선언은 전인류가 합의하였다기보다는, 다시말해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의 인권과 관련된 관념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기보다는 서구의 전통과 사상이 투영된 것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인권이 전 세계 인류에게 보편적 인권의 적용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가 인권과 관련하여 ‘보편책임(universal responsibility)’을 피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전 일이다. 더 거슬러 올라간 조선시대는 반상의 구별, 남존여비 사상 등 현대의 인권언어로 반인권이라 불리워지는 여러 현상들이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이었다.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자율적 존재여야 한다는 생각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기류에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한국신종교의 태동과 함께 교조들이 반인권적 요소들을 변혁하고자 나선 것이다.

본 논문은 증산의 인권사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증산은 인권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다양한 측면에서 인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증산의 인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서구의 인권과의 관련성을 통하여 접근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먼저, 인권의 의미와 인권이론의 전개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증산이 인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밝힐 것이며, 인권확립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해원이념임을 밝히고자 한다.

II. 인권이론의 전개

‘인권’이라는 용어는 페인의 저서 『인간의 권리(Right of Man)』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의 저서 『인간의 권리』는 프랑스 혁명(1789)이후 프랑스 의회가 1789년 8월 26일 헌법 서문으로 채택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을 영어로 번역 소개한 것으로, 페인이 사용한 ‘인간의 권리’라는 용어는 『프랑스 인권선언』 원문에 나타나 있는 ‘자연권(droit naturel)’에 대한 번역이다.¹⁾

오늘날 사용되는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를 뜻한다.²⁾ 여기에는 국적, 남녀, 인종, 경제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인간인 이상 누구나가 평등하게 가지는 권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인권’의 어원을 ‘권리’개념에 두고 있듯이, 그 개념사적 초기 흔적 역시 권리개념의 기원에 두고 있다. 이는 인권이란 말 그대로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듯이 권리 역시 특별한 수식어가 붙지 않는 한 대체로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을 의미하는 데서 이해할 수 있다.³⁾ 이러한 인권은 보편성을 담보한다. 그러나 현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보편성을 담보한 인권의 진보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와 함께 인권의 심각한 퇴보가 있어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권의 기원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하는 것인가?

인권의 기원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세계인권선언』의 대다수 기초자들, 그리고 유네스코 조사의 응답자들은 종교적 휴머니즘과 고대로부터의 전통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세속적·현대적 인권관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하지 않았다.⁴⁾

또한 앞서의 언급에서 인권의 어원을 권리에서 찾았던 바, 철학자들 및 법률연구자들이 대체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권리’관념의 최초의 문헌상의 확인은 영국 귀족들이 그들의 왕, 존(John)과의 투쟁에서 얻어낸 『대헌장(Magna Carta)』(1215)이다. 그 중요한 정신은 오늘날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에 계승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적법한 재판과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자유민의 체포 또는 감금할 수 없다고 하여 자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자연적 정의(正義)에 합당하다는 것이다.⁵⁾

이렇게 권리의 관념으로도 해석되어지던 인권관념의 역사는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되고 있다. 권리 개념의 형성에 공헌한 근대 자연법사상은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이론이다.

이성에 기초한 자연법사상의 발달은 17세기 중반 무렵에 유럽제국에서 거의 동시에 출현한다. 특히 『시민정부론』을 저술한 로크의 인권론에는 인간의 본성을 자연상태에서 자연권

1) 이봉철, 『현대인권사상』(서울: 아카넷, 2003), 105쪽.

2) 미셸린 이사이, 조효제 역, 『세계인권사상사』(서울: 길, 2008), 36쪽.

3) 이봉철, 앞의 책, 25쪽.

4) 미셸린 이사이, 조효제 역, 앞의 책, 57-58쪽.

5) 이봉철, 앞의 책, 28쪽.

의 보장에 의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 있다고 전제한다. 인권의 주체인 인간을 무엇보다 자연상태에서, 자연법 하에서 생존하는 이성적·자립적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다.⁶⁾

근대 사회에서 인권 개념의 발생은 인간해방의 이념과도 연관을 맺고 있다. 근대 사회에서 인간해방의 의미는 중세 봉건사회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한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독립혁명 등이 근대적 의미의 해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대적 인간의 해방이 자본주의적 계급해방이고 따라서 새로운 계급지배의 시작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곧 그 지배체제로부터의 인간해방이 다시 출발했다. 중세의 질곡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인간해방 사상은 자본주의 경제사회에 대한 비판의 의미로서 계급해방 사상으로 발전한다.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 투쟁과 사회권 쟁취 투쟁이 새로운 의미의 해방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다.⁷⁾

한편, 프랑스 혁명이 한창일 때, 미국에서는 독립전쟁 중이던 1776년에 『독립선언서(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그리고 1787년에 개정된 『미국헌법』등 인간의 권리에 관한 다양한 선언문이 나왔다.⁸⁾ 19세기 후반 무렵, 사회운동가들이 대량 빈곤과 같은 광범위한 경제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함에 따라 유럽의 국가들은 사회복지의 확대를 장려했으며, 20세기 초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전쟁의 여파는 인류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인 1945년 많은 나라들이 인권의 개념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48년 12월 10일 UN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⁹⁾

그러나 세계가 거의 200여개에 달하는 개별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집단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인권의 적용이 보편적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의 제기는 당연한 것처럼 들린다. 실제로 세계인권선언의 내용들 중 일부분은 보편적인 인권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또 다른 일부분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시대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었던 인권과 관련한 보편적 관념들이 들어있으며, 상당수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타적 가르침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만일 인권사상이 어느 특정 시기, 어느 특정 사회조건에서 보편화된 인권의 이상가치를 찾아내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사회적 실천형식을 모색하고 정당화하는 이론적 노력들의 표현이라고 본다면, 근대인권사상 그리고 그중에서도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근대자유주의 전통의 인권사상의 이상적 가치는 그 핵을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라는 이른바 ‘근대적 인간관’에 두고 있다. 자율적 개인으로 등장한 근대적

6) 임재홍, 『근대 인권의 확립』, 『인권법』(서울: 아카넷, 2008), 16-21쪽.

7) 임재홍, 위의 글, 27쪽.

8) 특히 독립선언서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와 같은 권리를 자명한 권리로 포함하고 있다.

9) 엘리자베스 라이커트,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연구회 역, 『사회복지와 인권』(서울: 인간과복지, 2008), pp.41-52.

인간은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해야 한다.”는 인본주의적 이상가치 즉, 정치사회적 차원에서의 인권이상가치와 짝을 이룬다. 자신에 관한 일인 한 자신 이외의 누구의 권위에 의해서도 구속되거나 간섭당하지 않고 스스로 최고의 권위로 선택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행위에 따른 최종 책임도 스스로 진다는 점에서 자유롭고 자율적인 것이다.¹⁰⁾

인권은 차별과 다른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인권의 주체가 인류사회의 구성원인 인간이라는 점과 인권의 대상이 인간 삶의 전 영역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인권의 근원은 그 어느 곳도 아닌 인간 그 자체여야 한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한다. 인권은 결국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Ⅲ. 증산의 인권해석

증산은 그의 언설에서 ‘인권’이라는 용어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의 언설에는 현대의 인권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발견된다. 취약집단이라 할 수 있는 여성과 노인, 무당, 상민, 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하는 증산의 태도가 그것이다. 여기서 ‘인권’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논의되는 인권 또한 계급제도와 그로 인한 차별에 원인이 있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소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증산은 인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먼저, 인권의 주체가 되는 인간에 대하여 증산은 “선령신(先靈神)들이 육십 평생, 헤아릴 수 없는 공을 쌓아서 하늘로부터 얻어낸 존재”¹¹⁾라고 설명한다. 인간을 단순히 홀로 존재하는 단독자로서의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령신과의 관계를 통해 천계-인간계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독특한 견해가 발견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인간이 없으면 천지도 없다”¹²⁾는 그의 언설을 통해 천지인 삼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존재의 중요성에 대한 증산의 평가를 살펴볼 수 있다. 인간 이외의 세계에 대한 외경의 틀 속에서 등장했던 천존(天尊), 지존(地尊)의 우주질서를 인존(人尊)의 등장을 통해 새롭게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천계-인간계의 유기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천존, 지존과 동등한 위치의 인존의 등장은 우주질서의 새로운 전

10) 이봉철, 앞의 책, 131-133쪽.

11)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이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선령신들은 육십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 만한 자손 하나를 타 내되 그렇게 공을 들여드려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도 많으니라. 이같이 공을 드려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리오』 하셨도다.”(『전경』, 교법2장36절) 『전경』의 인용은 ‘편, 장, 절’순으로 명기하며, ‘행록1장1절’은 ‘행록1-1’의 형식으로 명기한다.

12) 事之當旺在於天地 必不在人 然無人無天地 故天地生人 用人 以人生 不參於天地用人之時 何可曰人生乎(교법3-47)

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였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증산은 ‘차별의 철폐’라는 그만의 언어로 인권을 설명한다. 여기에는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는 인간존중의 사상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여성과 반상의 구별, 적서의 차별 등으로 피해를 입었던 하층계층들로 하여금 냉대와 질시를 벗어나 그들이 지녔던 본연의 권리를 회복시키고자 한 것이다. 먼저, 여성의 권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교화하고 있다.

후천에서는 그 닭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옛부터 내려오는 남존 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¹³⁾

남존여비로 대표되는 남녀의 차별은 억음존양의 상극의 원리를 내포한다. 상극의 원리 하에서 남존여비의 형태로 제도화된 구습을 타파하고 남녀의 분별을 없애고자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상제께서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띄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고 박 공우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때 공우가 상제를 모시고 태인읍을 지나는데 두 노파가 상제의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기에 상제께서 길을 비켜 외면하셨도다.”(공사1-32)라는 것을 통해 직접적인 여성에 대한 예우를 표현함과 아울러 “대장부(大丈夫) 대장부(大丈婦)”(교법 2-57)라고 하여 정음정양으로의 음양도수의 조정을 통하여 여성의 지위를 높여주었다.¹⁴⁾ 이는 남존여비의 관습이 무너지고 아울러 남녀동권의 시대가 열리게 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여성의 차별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선천의 잘못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모든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들과 유사한 권리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치적, 경제적 권력은 대개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많이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에 의한 권력 독점은 여성들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많은 차별을 초래하였다.

여성의 인권이 문제시되는 것은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의 법률과 관습에 의해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회평등이라는 형식적인 권리를 강조하는 물성적(gender-blind)인 평등주의의 권리 개념이 아니라 조건의 평등이라는 성인지적인 평등주의의 여성인권의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의 개념을 여성의 관점에서 변화시켜서 여성의 경험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인권의 신장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각종 차별과 폭력을 권리로 개념화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¹⁵⁾

13) 교법1-68.

14) 공사2-16, 17 참조.

또 다른 차별은 신분질서의 문제에서 비롯된 반상의 차별이다. 반상의 구별은 많은 포원을 지게 한 바, 증산은 이와 관련해서도 그 부당함을 설명한다.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땅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¹⁵⁾

반상의 구별이 지니는 폐단을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지적을 통해, 신분의 차별에서 오는 부당함과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원한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증산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존대말을 쓰셨도다…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교법1-10)라고 하여 천인을 무시하고 적서의 구분을 따지는 것 등의 구습에서 탈피하고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반상의 구별이 의미하는 바는 한편으로는 ‘노동하는 자’와 ‘향유하는 자’로의 구별지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약육강식의 자연세계에서 강자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인류문명을 이룩하게 되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강자와 약자의 구별이 생겨났다. 즉 역사적으로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사회에 이르러 전쟁포로와 채무노예 등이 발생하여 노예노동 등 노동하는 자에 대해 노동시키는 자의 구분이 생기게 되었다.¹⁶⁾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노동윤리를 대표하는 표현이다. 이런 의미에서 증산의 ‘차별철폐’라는 그만의 인권언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외에도 “상제께서 장 익모(張益模)의 집에 가셨을 때 그가 자기 어린 아들을 지극히 귀여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교훈하시기를 『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니 사람의 도의로서 부모를 잘 공양하라』 하셨도다.”(교법1-41)를 통해 존장(尊丈)을 경례로써 섬길 것을 교화하고 있으며, “상제께서 김 경학의 집에 대학교를 정하시고 『학교는 이 학교가 크니라.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였으니 천한 사람에게 먼저 교를 전하리라』 하시고 경학을 시켜 무당 여섯명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의 관건을 벗기고 그들의 각자 앞에 청수를 떠 놓고 그것을 향하여 사배를 하게 하고 시천주 세 번을 제각기 따라 읽게 하셨도다. 이것을 끝내고 그들의 이름을 물은 다음에 각자로 하여금 청수를 마시게 하니 이것이 곧 복록이로다. 이것이 해원시대에 접어들어 맨 먼저 천한 사람들에게 교를 전하신 것이었도다.”(교운1-32)라고 하여 당시의 유교사회에서 천대 받던 무속인에 대한 예우를 통해 현실에서 고통받는 민초들을 구제하고자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15) 안진, 『여성의 인권』, 『인권법』(서울: 아카넷, 2008), 274쪽.

16) 교법1-9.

17) 이원희, 『노동과 인권』, 『인권법』(서울: 아카넷, 2008), 342쪽.

있다. 이상에서 증산은 사회적 약자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과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통해 ‘인권’이 ‘인간존중’의 메시지임과 아울러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호존중의 의미가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증산의 의지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존엄을 동등하게 향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와 함께 실천적 행위가 병행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증산이 지녔던 민중에 대한 인식을 현대의 인권언어로 표현하면 생명의 귀중함과 존엄성에 대한 성찰을 의미한다. 인간이 원한을 맺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중 하나가 제도와 관습이다. 제도와 관습에서 차별과 억압, 대립과 쟁투 및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인간의 존엄성은 말살되었으며, 이는 다시 원한의 팽배로 이어졌다. 증산은 이러한 불합리로부터 인간본연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제도와 관습에서 야기된 것에 대한 해원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는 소외되고 억눌려 고통받는 민중을 구원하려는 의지의 표명이었으며,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다.

IV. 인권확립 근거로서의 해원이념

선천은 상극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지속적인 상호 반목과 투쟁,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나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선천은 근본적인 원리 자체가 불완전한 미완의 시대이다. 그러므로 남녀, 빈부, 반상의 구분 등이 있어 온 것은 근본적인 잘못이 세상을 지배한 이치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증산은 다음과 같이 선천의 현실을 진단하고 있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고 김 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¹⁸⁾

상극의 이치란 대립과 경쟁을 통해서 생존이 유지되는 이치를 말하는 것이다. 경쟁에서 패배했을 때, 패배자는 승리한 자와의 공존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극의 이치는 냉혹한 투쟁의 원리이다.¹⁹⁾ 이러한 상극의 원리는 대립과 투쟁, 모략과 불평등을 낳게 되

18) 공사1-3.

었으며, 결국 인간과 사물이 원한이 쌓여 세상을 진멸지경으로 몰고 간 것이다.

이러한 진멸지경의 세상을 구하고자 증산이 제시한 것이 천지공사이다. 천지공사는 ‘천지의 도수를 정리’-‘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우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처럼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고 하는 천지공사의 기저에는 해원이념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해원의 의미에는 인간계와 신명계 즉, 인간계와 천계의 모든 원과 한을 푼다는 대의(大義)가 내포되어 있다. 즉, 해원의 대상은 인간만이 아니었다. 원으로 가득 찬 인간계는 신명계에 뿌리를 두고 이루어졌다고 여겼기 때문에 신명계의 원을 푸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천지공사에 내재되어 있는 해원이념의 적용범위를 인간계에 한정하고자 한다. 인권의 적용범위를 인간에 한정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증산의 사상에서 해원이 중요하게 자리 잡은 것은 그의 활동계기가 농민전쟁이었던 데에 기인한다. 봉건지배체제의 모순 속에서 갇은 수탈을 당하던 농민들이 기존 봉건체제를 타파하고자 한 원인을 봉건세력의 수탈과 압제로 인해 맺힌 원한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해원이란 용어에는 이 세상의 실상에 대한 판단이 들어있다. 원한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일에 국한되어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은 세계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실상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해원은 원을 푼다는 뜻이다. 사람이 상호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긴 원한, 불평등한 관습 등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 발생한 원 등을 풀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인간을 억압하고 차별하며, 불만과 불평을 갖게 하여 원한을 품게 만드는 사회의 제도와 관습 등 구조적인 모순을 풀어버리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모순들은 전쟁과 반목 등으로 이어져 인간사회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다.

역사의 현장에서 만들어진 신분관계나 남녀차별과 같은 사회제도에 기인한 인간의 원은 결원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층민이나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원, 그리고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모든 창생들의 원도 해원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주어진 원한과 좌절, 일반 민중에게 있어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의 결핍에서 비롯된 원한도 풀어야 할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증산은 해원을 통해 소외되고 착취당하던 민중들이 마땅히 지녀야 하는 본래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자 한 것이다.

해원은 후천을 열기 위한 과정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자연적이든 그렇지 않든간에 관계없이 인간이 품게 되었던 원을 풀지 않고서는 선경세상을 열 수 없다. 상극이 상생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선천의 상극 세상에서 쌓이고 맺혔던 모든 원한을 해소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품은 원한으로 능히 천지의 기운이 막힐 수 있느니라.”(교법1-31)라고 한 내용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19) 홍범초, 『증산교개설』(서울: 창문각, 1982), 76쪽.

상극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욕심에 기인한 문제를 푸는 것이 해원이라면 진정한 해원이란 나 혼자 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역시 원한을 풀어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맺힌 원한이라면 이를 풀어야 하며, 이는 곧 화해의 정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해원에는 남을 잘되게 하려는 생각과 행동의 실천을 담보한다.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도 덕이 되어서 복을 이루게 되나니라”(교법1-56)에서 보여지듯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 버리고, 남을 잘되게 하는 행위를 통해 이타적 사상이 구현되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차원에서의 원의 극복이란 인간 상호간에 맺힌 원을 풀고 상생을 위해 실천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훈회를 살펴보면, 첫째, 마음을 속이지 말라. 둘째, 언덕을 잘 가지라. 셋째, 척을 지지 말라. 넷째,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다섯째, 남을 잘되게 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다섯 가지를 분석해 보면, 남에게 척(慼)을 지지 않고 남을 잘되게 하는 세부적인 실천방법으로 정심(正心), 언덕(言德), 은혜(恩惠)가 제시되고 있다. 척을 지지 않고 남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속이지 않을 것과 언덕을 잘 가질 것, 그리고 은혜를 저버리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섯 가지의 훈회는 해원상생의 실천방법이 되는 것이다.

한편, 증산을 따랐던 종도들은 동학도들보다 더 서민적인 기층의 민중이었으며, 이들의 욕구는 보편적이거나 합리적인 것보다도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것을 원하였다. 그러므로 증산은 해원과 관련한 종교행위에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민간신앙을 원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중을 끌어안고 민중에 다가가고자 한 것이다. 이는 억눌린 민중들로 하여금 그들의 언어로써 증산의 사유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 것으로 증산의 사유체계와 종교행위가 고정되고 불변하는 것이기보다 현실감각을 지닌 변화무쌍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신종교 운동이 민중종교운동으로 일컬어지는 까닭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눌린 민중이라는 특정 계층의 새로운 종교적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전개되었기 때문이며, 이들이 빈곤·질병·무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연발생적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원이념에는 민중들이 해원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이다.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교법3-35)에서 알 수 있듯이, 선천에서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여도 그 성패의 여부는 하늘의 결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지만 후천은 하늘이 계획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는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것과 ‘無人無天地’(교법3-47)를 통해 결국 모든 것이 인간에 의해 결정되고 발현될 수 있다는 인간의 주체적 의지가 강조되고 있다. 사실 증산은 인간을 하늘과 땅보다 높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²⁰⁾

20) 교법2-56.

증산은 천지인의 전통적인 위계질서를 부정하면서, 앞으로의 세상은 인간에 의해 일이 성사되는²¹⁾ 인존시대임을 설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인간이 하늘보다 존귀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동학이 하늘과 인간을 동격화 시킨 것²²⁾과는 달리 오히려 인간을 하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설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존을 강조하면서 “인망(人望)을 얻어야 신망(神望)에 오른다”(교법1-25)고 가르친 증산의 설법은 선천에서처럼 모든 권력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신망의 근본이 인망임을 밝힘으로써 인존시대의 새로운 윤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주체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어떤 종교 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분제도로부터 야기된 반상의 차별과 유교의 구습 때문에 억눌려 왔던 여성과 천민 등 사회에서 소외된 민중들을 쓰겠다는 증산의 의지²³⁾ 기존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혁명적인 주장으로써 근본적인 세계의 변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은 봉건사회의 체제 속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던 민중들의 처지를 인식하고 이를 철폐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인 이상 누구나 갖는다고 추정되는 권리’²⁴⁾ 또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권리로서 인간답게 느끼고 살아가야 하는 권리’²⁵⁾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 받아야 한다는 ‘인간존중’의 도덕적 이념이 내재되어 있다. 인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인간에 걸맞은 도덕적 자질이 갖추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하나인 계급모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증산의 인권사상은 인간을 존중받아야 하는 목적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인존’이라는 새로운 인간상의 등장을 통해 새로운 인간윤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인권언어의 지향점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21)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 또 너희가 아무리 죽고자 하여도 죽지 못할 것이요. 내가 놓아주어야 죽느니라.(교법3-35)

22) 수운 최제우(1824-1864)와 해월 최시형(1827-1898)을 거쳐 의암 손병희(1861-1922)에 이르러서 그간의 시천주사상과 인내천·사인여천 사상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사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또한 의암은 1905년 12월 1일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면서 종지를 ‘인내천’으로 선포하게 된다(노길명, 『한국신학종교연구』(서울: 경서원, 1996), 113-131쪽).

23) 상제께서 「나는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속에 드나들게 하여 다 고쳐 쓰리라. 그러므로 나는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천하고 어리석은 자를 쓰리니 이는 비록 초목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게 되는 연고이니라」 말씀하셨도다(교법3-1).

24) 조성은, 「신자유주의와 인권」,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엮음, 『인간답게 살 권리』(서울: 도서출판 사람생각, 1999), 76쪽.

25) 이봉철, 앞의 책, 39쪽.

V. 결 론

현재 우리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개념은 그 연원을 모두 서구사회에 두고 있다. 유엔인권헌장 제1조에서도 인권의 이념을 자유·평등·인류애로 명시하고 있다. 인권의 개념과 내용에 있어서 모델이 되고 있는 유엔인권선언은 일정부분 국가들의 합의라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면에서는 서구적 관점에서 기술되어진 서구의 전통과 사상을 반영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중산은 현재 논의되고 추구되고 있는 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중산의 사상에는 현대의 인권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발견된다. 인권의 취약집단이라 할 수 있는 여성과 노인, 무당, 반상의 구별, 적서의 차별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하는 중산의 태도에서 인권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외되고 억눌려 고통받는 민중들을 구원하려는 중산의 의지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읽을 수 있다. 여기에는 생명의 귀중함과 존엄성에 대한 중산의 성찰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권 개념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선천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속적인 상호 반목과 투쟁,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단순히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천이 상극의 원리에 지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과 노인, 무당, 반상의 구별, 적서의 차별 등이 있어 온 근본적인 잘못이 세상을 지배한 이치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상극의 원리는 대립과 불평등을 야기했으며, 급기야 인간과 사물을 진멸지경으로 몰고 갔다. 이러한 진멸지경의 세상을 구하고자 중산이 제시한 것이 천지공사이다.

천지공사에는 해원이념이 내재되어 있다. 해원은 원을 푼다는 것이다. 차별과 불평등, 사회제도와 관습 등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발생했던 원을 푼다는 것으로, 소외되고 착취당하던 민중들이 본래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자 한 것이다.

해원이념에는 해원주체로서의 민중이 강조된다. 중산은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다”고 하여 앞으로의 세상은 인간에 의해 일이 성사되는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인간을 하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중으로 대변되는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천하고 어리석은 자”를 천지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것을 통해 선천에서 부귀를 누리지 못하고 천대받았던 일반 민중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민중에 대한 사랑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연구자는 ‘인권’을 ‘인간이 가지는 권리’로 한정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간이 가지는 권리에 한정하여 해원이념을 해석하다 보니 해원의 적용범주가 다소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부분에까지 연장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인권의 확립근거로서의 해원의 적용범주를 천지인 삼계에 걸쳐서 적용할 때, 중산이 추구하고자 했던 진정한 해원이념과 조우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 부분 후일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교무부, 『전경』,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74.
- 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 서울: 경서원, 1996.
- 대순종학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 포천: 대진대학교 출판부, 2003.
- 박찬운, 『국제인권법』, 서울: 한울, 1999.
- 송호근,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6.
- 안옥선, 『불교와 인권』, 서울: 불교시대사, 2008.
- 이봉철, 『현대인권사상』, 서울: 아카넷, 2003.
-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서울: 아카넷, 2008.
- 조효제, 『인권의 문법』, 서울: 후마니타스, 2002.
- 홍범초, 『증산교개설』, 서울: 창문각, 1982.
- 마르틴 하이데거, 신상희 역, 『동일성과 차이』, 서울: 민음사, 2001.
- 마이클 프리먼, 김철호 역, 『인권:이론과 실천』, 서울: 아르케, 2006.
- 미셸린 이샤이, 조효제 역, 『세계인권사상사』, 서울: 길, 2008.
- 스기하라 야스오, 석인선 역, 『인권의 역사』, 서울: 한울, 1995.
- 엘리자베스 라이커트,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연구회 역, 『사회복지와 인권』, 서울: 인간과 복지, 2008.
- 장 자크 루소, 주경복·고봉만 역, 『인간 불평등의 기원론』, 서울: 책세상, 2007.
- 안 진, 「여성의 인권」, 『인권법』, 서울: 아카넷, 2008.
- 윤재근,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1.
- 이원희, 「노동과 인권」, 『인권법』, 서울: 아카넷, 2008.
- 임채홍, 「근대 인권의 확립」, 『인권법』, 서울: 아카넷, 2008.
- 조성은, 「신자유주의와 인권」, 『인간답게 살 권리』, 서울: 사람생각, 1999.

원고접수: 2010년 1월 5일 1차심사: 1월 24일 게재승인일: 2월 5일

연구자 소개: 윤기봉(尹起鳳)

① 전공: 인도철학, 종교학

② 관심영역: 인도철학, 한국신흥종교

③ 주요논저: <불교권화사상의 한국적 전개와 대순사상>, <근대에 있어서 한국종교의 개혁사상—대순진리회를 중심으로>, <대순진리회의 의례와 믿음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 신흥종교의 이상적 인간관>

④ E-mail: yungb@daejin.ac.kr

Abstract

Jeung-san Kang, Il-Soon's Human-rights Thoughts

Yun, Gibong

Daejin University

Human rights means the rights that all human being can and should have if they are human being. There is no better reason to have human rights than the fact that they only belong to human race.

It is not so long since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South Korea(our country, the Republic of Korea) was seriously discussed. Some aspects and activities in Joseon Dynasty were taken for granted without any concern while they would be regarded as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these days. However, this atmosphere had been radically changed with the new religious movements of Korea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Jeung-san' never used the word, 'Human rights', but 'Jeung-san' presented lots of various thoughts that can be considered as 'Human rights' in modern usage. His thoughts of human rights can be found out in his attitude toward the weak in social positions as well as can be clearly interpretable in his claim that the discrimination should be abolished.

The thoughts of human rights in 'Jeung-san' presents that human rights can be the message of the respect for human dignity as well as the mutual respect for each other, motivating the underprivileged to live and act as human being in their lives. 'Jeung-san' was willing to show that every human being must have the right for their dignity equally. 'Jeung-san' strongly suggested that people should take these ideas seriously in their mind and turn them into the real practice.

'Jeung-san' asserted the idea of 'Hea-won(解冤)' as the basic foundation in order to establish human rights firmly. 'Jeung-san' intended to guarantee people's natural privilege through 'Hea-won' because their right should be innately given to them whoever they are, in particular to who are neglected and exploited from the ruling class. The idea of 'Hea-won' not only involves people as the subjective figure of 'Hea-won' but also the

awakness of 'Jeung-san' about the dignity and great value in life.

Key words : Human rights, Jeung-san, 'Hea-won(解冤)', People, Life.